



역시 안정환 16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충산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 예선 한국-대만전에서 안정환이 첫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KIA "3위 탈환 힘드네"

타선 침묵... 삼성에 0-2 석패

한화 송진우 200승 실패

"3위 탈환 힘드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위 탈환의 길목에서 주저앉았다. KIA는 16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이상화의 6.2이닝 5안타 2실점 호투에 이어 마무리로 '황금팔' 한기주까지 투입했지만 6안타에 그친 팀 타선의 침묵으로 0-2, 석패했다. 9회초 2사 1, 2루 위기상황서 구원 등 관한 한기주는 공 1개로 상대 조동찬을 외야 플라이로 돌려 세웠으나 팀 패배로 그 빛을 잃었다. 이로써 KIA는 3위 한화와 1.5게임차로 벌어졌으나 4위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KIA 선발 이상화는 1회 볼넷 2개와 중전안타로 무사 만루의 위기 상황을 자초한 뒤 삼성 김한수에게 희생 플레이를 내주며 첫 실점했다. 이상화는 2회에도 1사 1,2루서 좌전 안타를 허용, 1점을 헌납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이상화는 그러나 5, 6회를 삼자 범퇴로 잘 틀어막고 7회 2사 1,2루서 마운드로 잘 틀어막고 7회 2사 1,2루서 마운드를 내리쳤다.

한편 '살아있는 기록' 송진우(40·한화)는 국내 첫 개인 통산 200승 달성을 위한 3번째 도전에서도 아쉽게 눈물을 흘렸다. 송진우는 이날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5.1이닝 동안 9안타 3실점을 내준 뒤 2-3으로

뒤진 6회말 1사 2, 3루서 마운드를 냈다. 한화는 2-3으로 뒤진 7회 2점을 뽑아낸 뒤 9회에도 2점을 보태, 6-3으로 역전승했다.

이밖에 두산은 적지인 수원서 현대를 9-3으로 물리쳤고 LG는 잠실서 롯데를 10-9로 꺾었다. 한편 17일 광주서 열리는 KIA-삼성전 선발로 전병두와 배영수가 각각 출격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6일 광주경기

삼성	1	0	1	0	0	0	0	0	0	2
KIA	0	0	0	0	0	0	0	0	0	0

- ▲승리투수=전병두(8승 4패)
- ▲세이브투수=오승환(2승 2패 34세이브)
- ▲패전투수=이상화(4승 4패)

◇프로야구 중간순위 (16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55	32	3	0.632	-	1승
2	현대	49	41	1	0.544	7.5	1패
3	한화	46	41	2	0.529	9.0	1승
4	KIA	44	42	3	0.512	10.5	1패
5	두산	41	44	2	0.482	13.0	1승
6	S K	45	49	1	0.479	13.5	1패
7	L G	37	53	4	0.411	19.5	1승
8	롯데	34	49	2	0.410	19.0	1패

역시 안정환

16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충산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 예선 한국-대만전에서 안정환이 첫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베어백호 데뷔전 '답답한' 승리

약체 대만 3-0 제압... 전술 미묘·골결정력 부족 여전

베어백호가 약체 대만을 제물로 첫 승리를 거뒀다. 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6일 대만 타이베이 충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 B조 2차전에서 안정환, 정조국, 김두현의 연속 득점으로 대만을 3-0으로 눌렀다.

지난 2월 예선 1차전에서 시리아를 2-1로 이긴 한국은 2연승을 달려 승점 6을 확보했다. B조 각팀 전적은 한국 2승, 이란 1승, 시리아 1승1패, 대만 3패가 됐다. 한국은 대만과 상대 전적 14승1무6패를 기록했다. 베어백 감독은 데뷔 무대를 무난한 승리로 장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답답한 한 판

이었다. 생각하는 축구를 지향한다는 베어백 감독의 전술은 특징이 없었고 태극전사들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대만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4위의 아시아 최약체 가운데 한 팀으로 이란과 시리아에 모두 네 골차로 대패했다. 3-0은 딱 만족스럽지 못한 스코어다.

베어백 감독은 안정환을 왼쪽 포위드로 놓고 정조국을 중앙에, 이천수를 오른쪽에 배치해 공격진을 가동했고 이을용, 김정우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김남일을 수비형으로 배치했다. 포백에는 장학영, 김진규, 김상식, 송종국이 나섰고 골문은 김영광이 지켰다.

전반 4분 공격에 가담한 김진규의 왼쪽 사각 슈팅으로 포문을 연 한국은 울퉁불퉁한 그라운드 컨디션과 무더운 날씨, 심판의 허술한 판정 등 악조건에 시달리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반 20분 안에 오프사이드 트랩에 네 번이나 걸려 번번이 흐름이 끊겼다.

골문을 열어젖힌 주인공은 역시 안정환이었다. 후반 31분 김남일이 미드필드 우측간에서 가볍게 로빙 패스를 띄웠고 볼의 궤적을 따라간 안정환은 끝까지 투런치와 겹쳐지면서 왼발 끝으로 가볍게 터치샷, 선제골을 뽑아냈다. 리드를 잡은 뒤에도 한참 돌고리를 찾지

못하던 한국은 정조국의 A매치 첫 골로 승리를 뒀다. 정조국은 후반 8분 이을용이 올린 크로스를 골지역 오른쪽에서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꽂아 세차게 네트를 흔들었다.

이천수 대신 박주영, 안정환 대신 김두현을 교체 투입한 베어백 감독은 4-2-3-1 전술로 포메이션 변화를 꾀했다. 김두현은 후반 35분 강력한 왼발 바운딩 중거리 슛으로 대만의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어 승리를 확인했다. 김두현은 시리아전에 이어 아시안컵 예선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호남지역 중학야구대회 개최

내일부터 7일간 무등경기장

"꿈나무 육성이 힘" KIA 타이거즈가 호남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을 위해 18일부터 7일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제1회 KIA 타이거즈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 대회를 개최한다. 광주, 전남·북 지역 10개 중학교가 참가해 팀씩 2개조로 나눠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팀이 준결승, 결승을 펼친다. 총 23경기가 열린다. 첫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A조 여수중과 화순중의 경기를 시작으로 하루에 4경기씩 치르게 된다. 상위 4팀에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주어지고 전체 참가팀은 야구 용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에도 각종 상품이 수여됨에 따라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현종·권윤민, KIA 유니폼 입는다

〈동성고 좌완 투수〉

〈시카고 컵스 포수〉

전준수 등 7명도 포함

프로야구 신인선수 2차지명

광주 동성고의 좌완 투수 양현종(18)이 2007년 프로야구 신인선수 2차 지명에서 1번으로 뽑혀 연고구단인 KIA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또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에서 포수로 활약했던 권윤민(27)도 족쇄가 풀려 전격 KIA행에 성공했다.

프로야구 KIA는 16일 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올해 전국대회에서 동성고를 두 차례나 4강으로 이끈 양현종을 1순위로 지명했다.

2차 드래프트는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하위팀부터 뽑는 데 지난 해 최하위였던 KIA가 1순위 지명권을 행사했다.

183cm, 73kg의 좋은 체격조건을 가진 양현종은 직구 최고구속 14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과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변화구가 강점이며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양현종〉



〈권윤민〉

있다. KIA에 이어 지명에 나선 현대는 전안 북일고 투수 장효훈을 낙점했고 LG는 영남대에 재학 중인 내야수 박용근, 한화는 투수 김현민(성남서고)을 지명했다.

롯데는 양현종과 함께 주니어 대표로 발탁된 투수 이용환(공주고)을 뽑았고 SK는 이창욱(고려대), 두산은 이원재(중앙고), 삼

성은 백정현(대구 상원고)을 선택했다. 이밖에 KIA는 5라운드에서 지난 2004년 10월까지 미국프로야구에서 뛰던 권윤민(27)을 뽑아 눈길을 끌었다.

권윤민은 '1999년 이후 해외 무대에 진출한 선수는 국내에 복귀할 경우 2년 간 월 수 없다'는 KBO 규약에 따라 당초 2차 지명 대상에서 빠졌으나 이날 법원에 냈던 2차 신인

순위	성명	포지션	출신교
1	양현종	투수	광주동성고
16	김연중	내야수	성균관대
17	이호신	외야수	경희대
32	성민규	내야수	홍익대
33	권윤민	포수	인하대
47	김주현	내야수	덕수정보고
48	김남석	내야수	광주제일고
56	박윤식	외야수	인하대
57	전준수	외야수	광주제일고

드래프트 신청자격 부여 가져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KIA의 낙점을 받았다.

KIA는 또 대구상고-홍익대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네브라스카대에 재학 중이던 내야수 성민규(24)를 비롯해 김연중(성균관대), 이호신(경희대), 김주현(덕수정보고), 김남석, 전준수(이상 광주제일고), 박윤식(인하대) 등도 추가 지명했다.

한편 9라운드까지 실시된 이날 지명에서 대상 선수 715명 중 59명의 진로가 확정된 가운데 포지션별로는 투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야수 21명, 포수·외야수 각 7명 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이저리그 소식

추신수 9회 대타... 삼진

미국프로야구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9회 대타로 출장했지만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허버트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경기에서 1-4로 뒤진 9회초 2사 1루에서 조니 파랄타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섰지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상대 선발 요한 산타나가 왼손 투수인데다 프랭클린 구티에레스를 빅리그에서 시험하기 위해 추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클리블랜드는 이날 1-4 패배로 연승 행진을 '6'에서 멈췄다.

서재응 4승 실패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호투를 펼쳤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시즌 4승 달성 실패했다. 서재응은 16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슈

아내며 안타 10개와 볼넷 2개로 2실점으로 막았다.

2003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로 이 할러데이와 선발 맞대결에서 올 시즌 등판에서 가장 많은 투수구 114개를 기록하는 역투를 펼쳤지만 2-2 동점이던 8회 초에 교체돼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서재응은 지난 4일 디트로이트전에서 3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3실점 이내로 막아내는 호투에도 승수를 올리지 못하는 불운에 물어야 했다.

올 시즌 3승9패를 유지했고 평균 자책점은 5.23에서 5.08로 내려갔다.

김병현 19일 8승 재도전

'한국형 핵잠수함'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내셔널리그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뉴욕 메츠를 상대로 시즌 8승 사냥에 다시 도전한다.

콜로라도는 16일(한국시간) 보도자료인 게임노트를 통해 김병현(7승7패·방어율 4.65)이 오는 19일 오전 8시10분 뉴욕의 세이츠다디움에서 열리는 메츠와 원정 3연전 첫 무리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3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7승을 올린 뒤 2경기에서 승수 없이 1패만 당한 김병현은 8승째를 노리지만 메츠는 올해 71승 46패(승률 0.607)로 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 중인 동부지역의 강팀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